

2017 년 1 월 22 일 “찾아오신 예수님(17) 참으로 눈을 뜨면”(요 9:1-12; 35-41)

<도입>

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졌던 고통관은 조상이 죄를 지어서 후손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소경이 눈이 먼 것은 자기 죄 때문인지,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던 것이죠. 이들은 소경이 된 원인은 죄 외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.

[1]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

일반적으로 3-4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소경되게 하셨다는 해석은 오해입니다. 오해의 이유 중 하나는 3,4 절 말씀을 떼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. (장과 절 구분은 13 세기 이후의 작업이며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음.)

이 두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야 맞습니다.

‘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.’ 제자들에 대한 답변을 주심.

‘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그분의 일을 낮일 때 우리(예수님과 제자들)가 해야 한다.’(must) → 그가 소경 된 원인 대해서는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.

단지 **하나님이 이 자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하실 것**이라는 말씀입니다. 눈 뜨게 하는 기적의 사건에 앞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.

[2] 인류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

1 절,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. 여기서 사람은 ‘한 남자’를 가리키지 않고 집합 명사인 ‘인류’라는 단어(헬. 안스로포스)를 가리킵니다. 말하자면, 영적으로 소경 된 인류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.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?

1:18 “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”

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. 영적 소경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. 그가 눈 뜨고 보니까 바로 **독생하신 하나님이**였던 것입니다.

이 소경 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한 인간 동료로 보지 않고, 하나님으로 보고 인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. v. 31-34 에서 이 사람은 눈 뜬 후, 긴 재판 속에서 눈을 뜨게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로부터 왔음을 증거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자기 민족 사회로부터 쫓겨납니다. 이제 그는 사회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, 경제 생활도 함께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.

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‘그 사람의 아들(인자)’을 믿느냐’고 물으시니까, 눈 뜨고는 처음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결국 그분이 인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**내가 믿나이다** 라며 절했습니다. 하나님께 사용하는 예배 용어입니다.

이 사람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.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므로 죄 가운데 있습니다. 죄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반대편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. 이 심판은 저주와 형벌을 당하는 마지막 심판을 뜻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.

파스칼의 팡세 “이 세상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충분하지만,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핑계 대기에 충분할만큼 어둡다.”

[3] 소경의 눈 뜸의 의미

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공동체로부터의 축출과 맞먹을 만큼 큰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. 그는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

임하는 지를 알았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맛을 본 이상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자기 사회에 속했을 때 여전히 거지 취급 받든지, 이제는 나은 사람으로 우대 받든지, 미련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.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보다 큰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.

두번째로 예수님과 만남 속에 거쳐간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

- (1) 그는 평생에 자기가 소경 된 것이 부모의 죄도, 자기 죄도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. 얼마나 신선하고 충격을 주는 말이었을까요?
- (2) 자신처럼 버려지고 저주 받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. 유대인에게는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.
- (3) 평생 버려진 죄인이라고 누구 하나 따뜻한 터치 하나 없이 살아왔을 사람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손바닥 체온으로 따뜻하게 짓이긴 부드러운 진흙을 눈에 발라주니 얼마나 귀한 대우입니까?

이 세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며, 귀하게 대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하신 똑 같은 것을 행하시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행하십니다. 나의 처지와 조건에 맞추어 찾아오신 그분은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.

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을 잘 모르고, 때로는 거절한다는 것이죠. 요한복음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반겨 만나시는 일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.

<나눔의 질문>

1.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눈을 참으로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. 눈을 뜨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?
2.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내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까? 간증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.
3. 당신은 예수 믿고 지불해야 할 삶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? 그것은 소경과 같이 눈을 뜬 기쁨과 가치로 말미암은 것입니까?
4. 파스칼의 인용글을 보면서 이 세상(또한 성경)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에겐 어둡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당신에게는 이 세상(성경)은 진리의 빛을 보기에 충분한 자원을 품고 있습니까?